

만성 괴사성 침입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의 경구 itraconazole 치료 1예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호흡기내과

*박혜선 · 김태형

서론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아스페르길루스종형, 알레르기형, 침입형 등으로 나뉜다. 만성 괴사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은 침입형의 일종으로 치료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초기 치료로서 itraconazole 200mg 을 경구로 투여하여 임상적인 호전을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9세 여자 내원 3일전부터 시작된 객혈을 주소로 외래 방문 하였다. 7년전 폐결핵으로 치료받았으며 2년전 폐결핵의 재발로 재치료 받은 병력 있었다. 흉부 방사선 사진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상엽의 종괴소견 있어 2주간 경구 항생제 투여 하였으나 크기 변화 없어 조직검사 위해 입원하였다. 기침을 동반한 객혈 호소하고 있었으나 신체검진에서는 특이소견 없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900/mm³,혈색소 11.2g/dL, 혈소판 236,000/mm³ 였고 혈청 전해질검사, 생화학 검사, 뇨검사 결과에서 이상소견 없었다. 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 결핵균 도말 검사에서 모두 음성 이었다. 흉부 X-선 사진에서도 우상엽의 종괴 변화 없었다. 입원 2일째 경피적 폐 세침 흡입검사 시행후 퇴원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폐 아스페르길루스로 나와 amphotericin B 정맥주사 계획하였으나 입원치료 거절하여 외래에서 경구 itraconazole 200mg 5주간 복용하였고 이후 추적검사한 흉부 X-선 사진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우상엽의 종괴는 사라졌다. 결론 만성 괴사성 침입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은 1981년 보고된 이후 국내외에 여러 증례보고가 되어있으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Saraceno등의 보고에 의하면 경구 itraconazole 의 성공률이 가장 높았고 amphotericin B 에 비해 낮은 독성을 고려할 때 초기 치료로서 itraconazole을 권장하고 있다. 본 증례의 경우 itraconazole 경구 200mg을 투여하여 임상증상의 호전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초기 치료로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료된다.

다제내성결핵 환자에서 저용량 linezolid 사용 전후의 결핵균 linezolid 감수성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정현 · 조상래* · 김미나** · 박이내 · 오연목 · 이상도 · 김우성 · 김동순 · 김원동 · 심태선

배경 : 2-3회의 2차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난치성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치료는 어렵고, 따라서 난치성 결핵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대책이 절실하다. Linezolid는 MRSA, VRE 등 약제내성균에 의한 감염증에 사용하는 oxazolidinone 계열 항생제인데 다제내성결핵에도 효과가 있음이 실험실 연구 및 일부 임상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linezolid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미 기존의 항결핵약물에는 내성이 생겨있을 가능성이 많아 linezolid 단독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linezolid 내성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다제내성결핵에서 linezolid를 사용후 내성 발현 여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난치성 다제내성결핵환자에서 linezolid 사용 전 후의 결핵균에서 linezolid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내성발현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난치성 다제내성결핵으로 linezolid를 포함한 치료를 시행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Linezolid의 일반적 용량은 600mg, 1일 2회 사용이나 본 연구에서는 600mg 1일 1회로 사용되었다(Park et al., J Antimicrob Chemother 58(3): 701-4, 2006). 약제감수성 검사는 PNU-100766 (linezolid)와 같은 oxazolidinone 계통 약제인 DA-7867 (동아제약, 대한민국)를 대상으로 proportional method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H37Rv를 대조군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결과** : 8명의 환자에서 얻은 17개의 균주가 대상이었다. H37Rv (0.5ug/ml)를 포함하여 linezolid 치료전 8균주 모두 MIC가 1ug/ml 이하이었다. 치료시작 후 음전되기 전 1-3개월 사이에 얻은 5개 균주 모두도 MIC가 1ug/ml 이하이었다. Linezolid 치료로 음전되었다가 부작용으로 linezolid 치료 중단후 다시 양전된 4 균주 모두에서도 MIC는 1ug/ml 이하이었다. 17균주 모두 DA-7867에 대한 MIC는 0.0625ug/ml 이하이었다. **결론** : 다제내성결핵 환자에서 수 개월간의 저용량(600mg 1일 1회) linezolid 치료는 치료효과는 유지하면서 약제내성을 유발하지는 않았다.